

양돈 호황 이후를 대비하자

머리말

상 당히 오랫동안 돼지 가격이 비교적 높게 유지되면서, 그 동안 기술 및 경영 개선에 노력한 양돈인은 상당히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호경기에도 질병으로 인한 손실이 많거나 생산성이 낮은 농가는 별 재미를 못 보고 있으니,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양돈 경기는 호황기와 불황기가 반복되면서 발전해 왔다. 근래에는 질병 및 IMF에 의한 사육두수 감축, 구제역이나 다이옥신 파동 같은 외부여건 변화와 수출확대 등으로 인해 불황기가 짧고 호황기가 비교적 오래 지속되고 있으나 언젠가는 불황기가 분명히 오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호황기에 불황을 대비해야 지속적으로 양돈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양돈농가의 의식



조 광 호 교수
(전남대학교 농과 대학)

근래에 축협 관측 자료와 전문가들이 양돈 경기를 전망한 내용과 실제가 상당히 달랐다. 돼지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는데도 내리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과거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해

보면 불황이 올법한데도 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양돈 농민이 관측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사육두수를 자율 조절하였기 때문인가?

우리 양돈에 불황이 올만하면, 대만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대일 수출증대,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다이옥신 파동으로 인한 국내산 선호 확대, IMF에 의한 사료가격 폭등과 현금거래 등으로 사육규모 감축 등 외생적 여건이 우리 양돈에 유리하게 작용한 측면도 크게 있으나, 양돈농가의 방역 태만에서 온 집단 폐사도 큰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양돈의 규모가 크게 향상되었으나('90년 호당 평균 사육두수가 33.9두에서 '99년 6월에는 301.2두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99년 6월 전체사육두수 7,344천두 중 78.7%가 전업규모라 할 수 있는 500두 이상 규모의 양돈농가에서 사육되고 있음), 경영주의 경영마인드는 소규모 사육시에 비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즉 규모가 커지면 질병발생시 피해도 커지므로 차단방역과 소독, 예방접종 등 질병예방에 더 철저히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농가가 많으며, 과학영농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영농기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경영에 도입하여 경영관리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인터넷이나 PC통신을 이용한 정보 획득에 노력하는 농민이 적다.

소규모 사육시 보다 방역에 많은 투자와 관심을 두지 않으면 큰 손실이 올 수 있는데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크게 당하고 난 후에야 정신을 차리는 형편이다.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경영 마인드도 달라져야 하며, 차단방역 등 질병 예방에 더 노력해야 큰 손실을 줄일 수 있다.

호황기에 투자할 일

불황기에 대비하기 위해 호황기에 준비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먼저 그 동안 미루어 왔던 시설 투자가 첫 번째 일이다. 즉 자돈사의 보온 시설에 미진한 것은 없는지, 돈사에 환기 시설이 부족하여 호흡기 질병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특히 출하 체중이 110kg대로 늘어나면서, 비육사 부족 등, 성장단계별 돈사규모가 균형되어 있지 않으면 이를 시정해야 한다. 또한 기술향상은 좋은 품종에 과학적 사양 관리가 필수조건이므로, 우량종돈을 확보해야 하며, 이의 비용절감을 위해 인공수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동력 절감을 위해 자동화 등, 시설 현대화에도 노력해야 한다. 과학적 사양관리를 위해서는 농장에 컴퓨터를 도입하여 경영 전반을 전산화해야 한다. 양돈용 전산프로그램은 비교적 많이 개발·보급되고 있으며, 일부는 그 효과도 입증되고 있으므로 좋은 것을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인터넷 등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정보입수 등 정보화도 추진해야 한다(양돈업의 전산화에 대해 잘 모르면 경상대학교, 강원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각 지역 국립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농업정보 119 서비스”를 활용하면 무료로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고 사용법을 교육시켜 주며, 컴퓨터 통신 환경을 설치

해 준다).

대부분의 양돈인들이 그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간관리이다. 주간관리로의 관리체계 전환이 어려워 못한다고 하는데, 잘 하는 농가를 방문하여 그들의 경험을 배울 필요가 있다. 컴퓨터에 의한 경영관리를 실시하려면 종돈 등 돼지와 자산 등에 대한 자료를 입력해야 하는데, 그 작업이 귀찮고 번거로워서 안하고 있는 농가가 있다. 그런 농가는 한꺼번에 자료를 입력하기보다 하루에 조금씩 입력하다 보면 대개는 1개월 이내에 완료할 수 있으니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

맺는말

돼지 가격이 높은 것이 양돈농가에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돼지 가격이 너무 높으면 새로운 양돈가가 더 늘거나, 기존의 농가가 규모를 확대시키고, 수입은 그 만큼 더 늘어난다. 그러다 보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돼지 가격은 떨어지고 양돈업은 불황기에 접어든다. 따라서 항상 불황이 올 것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공급이 초과될 때는 스스로 사육두수를 조절하여 다 함께 살아가는 지체가 필요하다(최근에 양돈인들이 사육두수를 자율 조절하여 불황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대단히 고무적이다). 전문가들은 금년 말경에는 돼지 출하두수가 증가하여 돈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미리 이에 대비해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양돈농가의 제일 큰 과제는 돼지가격 보다 경영개선, 기술개선에 더 관심을 갖고 경영마인드, 정보 마인드를 키워서 불황에 대비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다. **양돈**